

「십자가의 꿈」에서 보여진 꿈의 환상의 의미: 화자의 변형과 일치*

이동일 (한국외대)

I. 들어가는 글

고대영시 「십자가의 꿈」(“The Dream of the Rood”)이 수록된 수서본은 영국이 아닌 북부 이태리 베르첼리 사원의 도서관(Codex CXVII)에 전설 및 설교집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시의 부분적인 내용들이 영국의 중북부의 루스웰(Ruthwell)에 있는 돌 십자가-700년경에 세워짐-에 룬(Rune)문자로 새겨져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그 기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¹⁾ 영국 본토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완성되었음.

1) Ruthwell Text(RT) vs “The Dream of The Rood”(DR)

아래 내용은 판독 가능한 룬 문자를 고대영어로 옮긴 것으로써 「십자가의 꿈」과 비교했을 때 문장구조와 어휘선택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RT: [+Ond]gerede hinæ God almehttig, ----- 39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웃을 벗으셨노라.]

의 기독교 전래를 A.D. 597년으로 보았을 때 루스웰 십자가의 비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루스웰 십자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꿈」이 당시에 아마도 구전형태로 이미 존재했거나 혹은 루스웰 십자가에 새겨진 내용들이 후기 시인인 「십자가의 꿈」의 시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십자가의 꿈」은 꿈의 시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으나 합당한 독립적인 문학의 장르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중세 문학에 들어서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작품을 비롯한 『진주』(Pearl), 윌리엄 랭랜드(William Langland)의 『농부 피어스』(Piers Plowman) 등과 같은 본격적인 꿈의 시(Dream Poetry)의 장르가 형성되나 고대 영문학 시기에는 꿈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꿈과 연관된 고대영시로서 우리는 최초의 고대영시의 하나로 간주되는 「캐드먼의 찬양가」(“Caedmon’s Hymn”)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초기 고대영시으로써 「비드의 마지막 노래」(“Bede’s Death Song”)을 들 수 있으나 이는 꿈의 소재와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비드사(Venerable Bede)에 의하면 일자무식의 노섬버리아(Northumbria) 목동 캐드먼(Caedmon)은 꿈속에서 시작에 관한 재능을 부여받아 수도원에 들어

-
- DR: Ongyrede hine þa **geong hæleð**, (þæt wæs God ælmihtig), ----- 39행
 [그러자 그 젊은 영웅--전능하신 하나님--은 옷을 벗으셨노라.]
- RT: þa he walde on galgu gistiga, ----- 40
 [그리고 그 분은 처형대에 오르셨노라.]
- DR: **strang ond stiðmōd**; gestah he on gealgan heanne, ----- 40행
 [그 분은 굳세고 담대한 마음으로 높은 처형대에 오르셨노라.]
- RT: [m]odig f[ore *allæ*] men. ----- 41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셨노라.]
- DR: modig on manigra gesyhðe, þa he wolde mancyn lisan. ----- 41행
 [인류를 구원하시시고자 할 때 그 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셨노라.]
- RT: [B]ug[a ic ni dorstæ.....] ----- 42
 [나는 감히 (몸을) 구부릴 수가 없었노라.]
- DR: Bifode ic þa me se beorn ymbclypte; ne dorste ic hwæðre bugan to eorðan,
 ---42행
 [그 분이 나를 껴안을 때 나는 떨었노라, 하지만 나는 땅을 향하여 몸을 구부릴 수도 지면에 쓰러질 수도 없었노라.]

가 일생을 찬양가를 지으며 수도사 생활을 했다고 전한다(Sherley-Price 251).²⁾ 이러한 기록을 볼 때 8세기 비드가 활약했던 노섬버리아의 문예황금기는 예언의 방편이나 우주론적 진리를 드러내는데 꿈이나 환상을 적절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인 전통은 『다니엘서』 같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고대 문학 이전의 대륙의 고전 문학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10세기 후반 혹은 11세기로 간주되는 고대 비가(elegy)로 간주되는 『방랑자』(“Wanderer”)에서는 방랑자가 겨울 바다 향해 중 일순간 꿈속에 빠지면서 혹은 환영 속에서 옛 날 자신의 군주와 동료 용사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방랑자에서는 꿈이 시의 전반적인 구도를 형성하지 못하며 과거와 현재의 괴리에서 파생하는 생의 비애감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만 사용되어 진다. 이와 달리 『십자가의 꿈』에서 사용되는 꿈의 환상(dream vision)은 시의 전체 구도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신학적 교리를 다루고 있다. 꿈을 배경으로 하는 『캐드먼의 찬양가』에서는 절대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으며 반면 『십자가의 꿈』에서는 구원과 속죄라는 신학적 교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차이점 외에도 『십자가의 꿈』은 다양한 화자를 등장시켜 화자 사이에 존재하는 변형과 일치라는 매우 특이한 시적 기법을 활용한다. 정체성을 둘러싼 화자 사이의 변형과 일치는 성부·성자·성신 사이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십자가의 꿈』만이 지니는 독특한 문학적 기법으로 간주된다.

II. 화자의 변형과 일치: 나무와 십자가

『십자가의 꿈』³⁾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지닌다. 1) 들어가는 부분, 1~3행; 2) 영광의 나무(십자가)에 관한 꿈꾸는 자의 묘사, 4~23행; 3) 나무(십자가)가 경험

2) 비드의 『영국교회사』(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ish Church and People).

3) 본 연구에서 인용되는 원문과 행은 Swanton에 근거하며 영문약칭은 DR을 사용한다. 우리말 번역은 필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대영어의 특성상 직역을 고수했음을 밝혀 둔다.

한 것 들—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매장, 24~77행; 4) 나무(십자가)가 인간 들 사이에 처해 있는 상황, 78~94행; 5) 꿈꾸는 자를 포함한 인간들에 대한 십자가의 메시지, 95~121행; 6) 꿈꾸는 자의 현재 삶과 미래에 관한 희망에 관한 기록, 122~149행; 7) 꿈꾸는 자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결의 및 죽음 후의 삶에 대한 희망, 150~156행.

이와 같은 시의 진행에서 3명의 화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화자는 꿈꾸는 자로서 수잔 랭거(Susanne Langer)가 지적한대로 이 화자는 “항상 시의 중심”(139)에 있으면서 시의 전반적인 진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시의 시작 부분과 시 혹은 시인의 궁극적 지향점인 구원에 관한 확신을 표명하는 끝 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두 번째 화자는 나무 혹은 십자가로서 첫 번째 화자의 꿈속에 등장하며 예수의 처형 장면을 포함한 자신의 경험을 알린다. 세 번째 화자는 예수그리스도이며 의인화된 십자가(rod)를 통하여 기독교 교리와 연관된 내용을 알린다. 이와 같이 세 명의 개별적 화자가 등장하지만 각 자의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꿈속에 맨 처음 등장하는 나무는 시의 전개에 따라 십자가로 변하며 이 십자가는 다시 예수의 이미지를 지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화자는 꿈속의 환영을 통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새로운 상태는 예수의 영·육간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숲 속의 나무(*treow*)와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십자가의 일치는 첫 번째 화자인 꿈꾸는 자(*dreamer*)와 두 번째 화자인 나무 자신의 증언에 의해 쉽게 파악된다. 꿈꾸는 자는 세 번에 걸쳐 꿈속에서 ‘나무’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ic gesawe syllicre treow”(나는 놀라운 나무를 보았노라; DR 4), “Geseah ic wuldres treow”(나는 그 영광의 나무를 보았노라; DR 14), “ic beheold ... Hælendes treow”(나는 ... 구세주의 나무를 바라보았노라; DR 25). 하지만 첫 번째 화자인 꿈꾸는 자에 의해 언급되는 ‘나무’는 단순한 자연의 구성물을 뛰어넘어 또 다른 차원의 추상물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이는 ‘나무’를 수식하는 “*syllicre*”(놀라운)과 “*wuldre*”(영광)에서 점증적으로 발전하며, 마지막으로

“Hælendes treow”(구세주의 나무)에서 종교적 상징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화자인 꿈꾸는 자는 시의 초반부에서부터 ‘나무’와 그 나무가 잉태하고 있는 또 다른 실체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지우지 않고 있다. 반면 첫 번째 화자에 의해 등장하는 두 번째 화자인 ‘나무’는 자신의 증언 시작부분에서 자연의 구성물인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나중에 언급되는 예수를 상징하는 십자가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þæt ic wæs aheawen holtes on ende”(나는 숲의 가장 자리에서 배어졌노라; DR 29). 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의인화(*prosopopoeia*)된 인격체의 속성을 제외하면 ‘나’(ic)라는 나무는 일체의 상징성이 배제된 ‘숲 속에서 잘리어진 나무’라는 자연물인 나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독자적인 정체성은 화자가 된 ‘나무’인 ‘나’가 또 다른 목격자—첫 번째 화자인 꿈꾸는 자가 자신의 꿈속에서 십자가의 환영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를 일차적 목격자로 지칭함—로 소개됨으로써 구체화 된다.

Geseah ic þa Frean mancynnes
 efstan elne micle, þæt he me wolde on gestigan. (DR 33-34)

그리고 나는 인간의 주님이 대단한 열정으로 서둘러 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 했노라.

나중에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무, 십자가, 예수 사이의 일치성을 고려할 때 화자인 ‘나무’와 예수의 개별적 정체성은 매우 이례적인 장치로 간주되며 시인의 이러한 분리와 통합의 과정은 화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나무에서 십자가로의 변형은 다음에 진행되는 십자가와 예수의 일치에서 보여 지는 복잡한 상징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화자인 나무의 고백에 의해 이루어진다. “Rod wæs ic aræred”(나는 십자가로 올려 졌노라; DR 44).

III. 나무(십자가)와 예수

시의 초반부에 소개되는 꿈의 환영 속에서 꿈꾸는 자는 황금으로 치장된 나무(십자가)를 목격하게 된다. 꿈꾸는 자는 나무(*treow*)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묘사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가 지칭하는 나무가 단순한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begoten mid golde gimmas stodon
 fægere æt foldan sceatum, swylce þær fife wæron
 uppe on þam *eaxlgespanne*. (DR 7-9)

보석들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교차된 나무 위에 있는 다섯 개의 보석 같았노라.

시인이 의도하는 상징성은 다섯 가지 보석의 빛줄기와 십자가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숫자 다섯은 예수의 처형 장면을 연상시키는 다섯 상처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기독교의 다섯 덕목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꿈꾸는 자가 목격한 나무 혹은 십자가는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깊은 상징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십자가의 원어는 “*eaxlgespann*”으로서 *eaxl*(어깨)와 *gespann*(연결하거나 연장해주는 것)의 합성어이다(Bosworth and Toller). 두 형태소의 뜻을 통합하면 “교차된 나무”(cross-beam) 혹은 “십자가의 접합 부위”(junction of cross)라는 의미가 도출되어 마이클 스완톤(Michael Swanton) 교수가 지적하는 “예수의 팔이 못 박힌, 교차된 처형대”의 의미와 일치하게 된다 (Swanton 107).⁴⁾ “*Eaxlgespann*”은 이제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내포하게 되며 나아가서 단순한 처형대의 의미를 탈피하여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내

4) “*eaxlgespann*”은 “십자가(처형대)의 중심 부위”(axle-tree or center piece of the cross)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 예수의 팔이 못 박힌 십자가의 상단 부위를 지칭한다. (MED 579-80).

포하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의 주체로 부각하게 된다. 꿈꾸는 자가 목격하게 되는 나무(십자가)는 ‘황금으로 흠뻑 적셔진(황금으로 치장된)’의 표현을 빌려 묘사되어지고 있다. “*begoten mid gold*”(covered with gold; DR 7). 나무(십자가)와 황금의 조합에 의해 꿈속의 대상은 단순한 대상이 아닌 은유적 상징성을 품게 된다. 고대영어 동사인 *begoten*(to sprinkle, drench; Bosworth and Toller)은 일반적으로 물이나 피와 함께 사용되나 이 경우에는 황금과 연계하여 사용되고 있다. *Begoten*의 원의미를 적용하면 “*begoten mid gold*”은 “황금으로 치장된”의 의미가 아니라 “황금으로 흠뻑 적셔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⁵⁾ 시인 혹은 화자인 꿈꾸는 자는 십자가 처형 당시의 피로 얼룩진 나무 십자가와 예수의 몸을 의식하여 십자가 처형 사건 이후의 성화된 십자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begoten*”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묘사는 시의 전개와 함께 더욱 구체화되면서 꿈꾸는 자가 목격한 나무(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또 다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함을 알 수 있게 된다.

Hwæðre þurh þæt gold ongytan meachte
 earmra ærgewin, þæt hit ærest ongan
 swætan on þa swiðran healf. (DR 18-20)

하지만 나는 그 황금을 통하여 그 비참한 분이 이전에 겪었던 투쟁을 볼 수 있었는데, 먼저 더 강한 쪽(오른 쪽)에서 피를 흘리셨노라.

위 예문은 성경에 언급되는 예수그리스도의 처형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는 부분으로써, 꿈꾸는 자는 십자가 이면에 투영된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점진적으로 십자가와 예수그리스도를 동일시하게 된다. ‘오른쪽에서 흘러내린 피’는 명확히 예수그리스도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문 중의 “hit”(그것)는 십자가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예수의 몸을 지

5) 고대영어에서 “*begoten*”은 통상 물이나 피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이나 『십자가의 꿈』과 『엘레나』(“*Elene*”)의 27행에서는 금과 함께 사용되어 상징적 의미를 형성한다.

칭하게 된다. 구체적인 육체적 고통 장면의 묘사를 통한 십자가와 예수의 정체성 일치는 다음의 구절에서도 반복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로의 전이는 매우 점진적인 면을 보이는데 먼저 화자인 나무(십자가)는 예수의 처형 장면을 목격하는 방관자에서 점진적으로 예수의 고통(처형)에 참여함으로써 예수와의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burh drifan hi me mid dearcen næglum, on me syndon þa dolg gesien
opene inwidhlamm, (DR 46)

그들은 검은 못으로 나를 찔렀고 그 공개된 사악한 상처는 내(십자가)위에 드러났노라.

예문의 “me”(나=십자가)는 아직 예수가 아닌 십자가를 지칭하지만 성경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기억하는 독자는 “me”가 이전의 목격자의 위치를 탈피하여 고통 받는 예수의 이미지를 암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아직 십자가와 예수의 일치는 아직 진행단계이며 다음에 이어지는 십자가가 예수와 같은 영적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다음 장면에서 온전한 일치는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의 처형 장면을 상기시키는 위 묘사는 담화의 주체가 꿈꾸는 자가 아닌 십자가라는 점에서 앞 선 예문(DR 18-20)과 차이를 이룬다. 십자가와 예수의 완전한 일치는 시의 중후반부에서 진행되는 화자인 십자가의 담화에서 입증된다.

ic hælæn mæg æghwylcne anra (DR 85-6)
내(십자가)는 그들 모두를 치유할 수 있노라

ær þa ic him lifes weg (DR 88-9)
내(십자가)가 그들을 위해 생명의 참다운 길을 열기 전에

여기서 보여 지는 화자(십자가)는 이전에 투영된 자유의지의 제한자로서의 수동적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간의 영적 문제 즉, 기독교 핵심 교리인 인간 구제와 같은 구속주 만이 할 수 있는 절대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게 되어 십자가와 예수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본문의 “ic”(I)는 화자인 십자가가 분명하나 담화의 내용을 감안하면 구원과 속죄의 주권자인 예수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객체에 두 개의 주체가 공존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예수를 대신하는 대변자의 필요성을 의식한 시인의 의도된 장치로 간주된다. 하지만 십자가와 예수 사이의 일치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화자인 십자가의 강조된 화술에서 엿 볼 수 있다. 화자인 십자가는 35-47행에서 3회에 걸쳐 “ne dorste ic”(나는 감히 할 수 없었노라)와 같은 상투적 표현(formulaic expression)을 도입하여 자신의 목격담을 진행한다.

bær ic þa ne dorste ofer Dryhtnes word bugan oððe berstan (DR 35-36)

나는 감히 몸을 구부릴 수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노라

hyldan me ne dorste (DR 45)

나는 감히 땅에 몸을 구부릴 수도 없었노라

ne dorste ic hira ænigum sceððan (DR 47)

나는 감히 그들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없었노라(해할 수 없었노라)

“감히 할 수 없었노라”라는 뜻을 내포한 위의 상투적 표현은 역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음에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노라’라는 함의를 지니게 된다. 즉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는 이전의 수동적 방관자였던 나무의 위상을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격적인 자유의지의 집행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46행 이전에 보여 지는 십자가의 위상은 절대자의 의중에 순종하는 추종자의 이미지를 답습하고 있으며(Lee 124) 자유의지의 범주를 고려했을 때 십자가 개인에 국한된 속성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47행에 들어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자제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타인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권능자의 위상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예수와의 부분적 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십자가와 예수 사이에는 존재하는 또 다른 괴리는 바로 화자인 십자가가 언급하는 “bana”(살해자)에서 발견된다.

IV. 십자가와 Bana

의인화된 십자가는 예수의 처형 장면을 전하는 장면에서 『베오울프』(Beowulf)나 『몰든의 전투』(“Battle of Maldon”)에서 보여 지는 충성스런 용사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러한 충성스런 용사의 이미지는 자신이 사용하는 “bana”라는 어휘에서 본래 이미지를 상실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Ongunnon him þa moldern wyrcan
beornas on baban gesyhðe, (DR 65b-66a)

그런 다음 사람들은 살해자(십자가?)가 보는 앞에서 그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
노라.

고대영어 *bana*가 “직접 살해자”(slayer)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이 장면에서 십자가는 충성스런 용사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방관자내지 비겁자의 이미지로 전락하게 된다. 즉, 십자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의 처형 현장에서 자신의 군주인 예수를 보호하는 대신 예수의 처형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 전체에서 일관되게 투영되는 예수의 충성스런 추종자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게 된다. 영웅주의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십자가의 꿈』은 핵심 인물인 예수의 영웅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웅시에 사용되는 형용어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Dryhten” (lord), “æðeling” (prince, lord), “guman” (man, hero), “wuldres ealdor” (the lord of glory), “dryhtnes þegnas” (the servants of the

Lord). 이에 상응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지칭할 때도 영웅주의 시에 인용되는 어휘들이 사용된다. “weorod” (band, host, company), “hilderincas” (warriors). 코미타투스라는 영웅주의 행동규범에 의하면 군주의 죽음을 직면한 용사는 군주의 원수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십자가의 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영웅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예수-코미타투스의 군주 이미지-와 십자가 및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영웅주의 어휘로 묘사된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영웅주의 분위기와 달리 군주의 용사인 십자가는 군주(예수)의 죽음에 개입되는 살해자로 묘사되어 그 역할과 정체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본문의 ‘살해자’를 성경문학의 전통에 준하여 십자가가 아닌 유대인이나 로마인들로 간주하고 있다(Wrenn 106). 이러한 해석의 문법적 근거로써 윌리엄 볼톤(William Bolton)은 *banan*을 서부색슨어의 복수 소유격으로 간주한다(Bolton 97). 이에 반하여 엘빈 리(Alvin Lee) 교수는 엄격한 어원 해석을 탈피하여 문맥에 준한 해석을 가미한다. 그에 의하면 십자가는 자신의 경험-예수가 자신의 몸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사용되는 도구로 전략하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살해자’라고 지칭한다는 것이다 (Lee 182).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 차이는 근본적으로 *bana*에 대한 고증학적 의미설정에 기인되고 있다. 마이클 스완톤(Michael Swanton)은 *bana*에 중립적 의미를 부여하며 특히 살해자를 뜻하는 범죄행위와 같은 의미 부여를 거부한다(Swanton 278). *Bana*를 둘러싼 중립적 의미 즉, 직접 살해자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범죄행위와 무관하다는 견해는 로렌스 챔버즈(Lawrence Chambers)에 의해서도 제기된다(Chambers 234). 챔버즈의 이러한 주장은 『베오울프』의 『핀 에피소드』(Finn Episode)에 국한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bana*를 둘러싼 중립적 의미는 계속된다. 영웅주의 주제를 다루는 『베오울프』는 시의 상황에 어울리는 살해, 복수와 같은 어휘들이 반복된다. 단일 에피소드를 다루는 『십자가의 꿈』과 달리 『베

오울프』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루는 만큼 동일 어휘라 할지라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Bana*의 경우 일차적으로 직접 살해자를 의미하는 “handbonan” (hand-slayer; *Beowulf* 2502)가 있으며, 도구인 칼(sword)을 뜻하는 “ecg bona” (blade the killer; *Beowulf* 2507)이 있고, 마지막으로 직접 살해가 아닌 상황—예를 들면, 전투 장면에서 싸움에 임하지 않고 피신한다거나,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주나 아군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을 연출하는 경우이다. 『베오울프』에 등장하는 히예락(Hygelac) 왕은 “온겐테오우의 살해자”(bonan Ongentheoes)로 불리어지나 시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온겐테오우의 직접 살해자는 히예락이 아닌 에오보루(Eofor)임을 알 수 있다. 히예락 휘하의 장수인 에오보르가 일대일 격투를 통해 적장 온겐테오우를 살해하게 되는 장면이 『베오울프』 2975행에서 2985행에 걸쳐 자세히 묘사된다. 이로써 ‘살해자’의 주체는 히예락이 아닌 에오보르임이 입증된다. 개인보다는 군주 혹은 집단을 더 중시하는 영웅주의 도덕관에 견주어 보았을 때 에오보르의 군주인 히예락에게 전승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고대영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bana*는 직접 살해자의 의미를 벗어나 중립 혹은 도구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꿈』에서 *bana*가 사용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십자가는 예수의 직접 살해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된 나무-십자가-예수 사이의 변형과 일치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처형 장면에서 등장하는 십자가는 1단계 방관자에서 2단계 동화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와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직접 살해자의 의미는 문맥상의 불일치를 이루게 된다. 특히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제 3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1단계 방관자(십자가)의 이미지는 직접 살해자의 이미지와 커다란 거리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의 처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도구(처형대)로 사용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즉, 간접 살해에 대한 양심적 고뇌가 있을 법 한데 실제로 십자가는 이에 관한 내적 고백을 토로하고 있다.

Sare ic wæs mid sorgum gedrefed, (DR 59)

내(십자가)는 온통 슬픔의 중압감에 억눌려 있었노라.

『십자가의 꿈』에 사용된 *bana* 역시 영웅시의 부분에서 사용되는 예와 같이 직접 살해자의 의미와 무관하며, 자신(십자가)이 예수의 처형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중립적 의미로 간주된다.

V. 꿈꾸는 자와 십자가(예수)

꿈꾸는 자(dreamer)와 예수의 관계는 앞 서 논의된 나무(십자가)와 예수를 둘러싼 변형 및 일치의 과정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한 십자가는 시인의 의도된 의인법에 의해 감정과 사고력을 겸비한 인격체로 등장하여 종극에는 예수와의 부분적 동화를 이루게 된다. 반면 꿈꾸는 자는 꿈속의 환영을 경험한 후 새로운 영적 각성에 이르는 의식의 반동을 보여주게 된다. 십자가의 경험과 꿈꾸는 자의 경험이 공히 양자를 더 높은 단계의 의식세계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십자가와 꿈꾸는 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변형과 일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둘러싼 자아점점의 단계가 공히 두 화자인 꿈꾸는 자와 십자가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또 다른 상태로의 전이를 암시하게 된다. 이미 십자가의 변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화자인 꿈꾸는 자도 어떤 변형의 과정을 거쳐 예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꿈꾸는 자와 십자가는 일차 단계에서 매우 수동적인 목격자-꿈꾸는 자는 나무(십자가)를 목격하게 되고 나무인 십자가는 예수의 처형 장면을 목격-의 위치를 지니게 되나 나중에는 자신들이 목격하는 대상에 동화되는 변형의 과정을 밟게 되고 종극에는 둘 다 매우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꿈속의 환영을 접한 꿈꾸는 자의 초기 반응은 자신의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특징지어 진다

Syllic wæs se sigebeam, and ic synnum fah⁶),

forwundod mid wommum. (DR: 13-14)

그 승리의 나무는 놀라웠고, 나는 죄로 젖어있었고, 죄로 상처 받았노라.

13행과 14행에서 보여 지는 시인의 시작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두운작시법(alliteration)이며 다른 하나는 의미상의 대조를 이루는 대조법이다. 13행의 후반부 강세어는 “synnum”(죄)과 “fah”(젖어 있다, 물들어 있다)나 13행의 두운을 형성하는 어휘는 *fah*가 아니고 전반부의 *ysllic*와 *sigebeam*과 *synnum*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Synnum*(죄)를 기준으로 하는 두운법의 설정은 우연한 어휘 조합이 아니며 꿈꾸는 자의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하고 있는 의식세계를 규명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장치로 간주된다. 더욱이 이러한 의도성은 13행의 전반부 내용(13a)과 후반부 내용(13b)의 의미론적 차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반부 내용은 성화된 십자가의 승리와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반면 후반부에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다루고 있다. 이는 영적 승리를 통한 아름다움과 죄에 짓눌린 인간의 고통의 대조이고 동시에 ‘승리의 십자가’에 투영된 신성의 이미지와 거기에 못 미치는 인간의 나약한 이미지의 대조이다. 나무(십자가)의 출현은 기이한 시각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선 내적 자아성찰, 특히 죄성과 연관된 종교적 성찰과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인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아—을 깨닫게 하는 장치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저변에는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자리 잡고 있는데 20행에서 보여 지듯이 슬픔의 감정이 주를 이룬다. “Ealle ic was mid sorgum gedrefed(나는 슬픔에 완전히 지쳐있었노라, DR 20).

이와 같은 감정 표현은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두 번째 화자인 십자가의 반응

6) *Fah*의 의미는 이 부분에서 매우 불분명하다. 고대영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stained’(젖어 있다, 물들어 있다)이다. 하지만 인간의 위법한 행위와 연관 될 때는 ‘guilty’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예) “maga mane fah” (creature crime stained; Beowulf 978 and Andreas 1588). 『십자가의 꿈』에서는 ‘guilty’와 연계할 수 있는 *synnum*이 사용되었으므로 문맥을 고려하여 ‘젖어 있다, 물들어 있다’의 의미를 택했음.

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첫 번째 화자인 꿈꾸는 자와 두 번째 화자인 나무(십자가) 사이에 의식의 공감대 혹은 정체성을 둘러싼 부분적 일치를 형성하게 된다.

Sare ic wæs mid sorgum gedrefed, (DR 59)

나(십자가)는 온통 슬픔의 중압감에 억눌려 있었노라.

하지만 이와 같은 감정적 반응을 둘러싼 양자 사이의 일치성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며, 꿈꾸는 자가 근원이 불확실한 도덕적 죄(moral transgression)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토로하면서 둘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꿈꾸는 자는 시의 초반부는 물론 후반부에서도 자신의 정신적 혹은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자아점검의 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십자가는 자신이 목격한 바를 진술하며 끝 부분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구원론과 같은 핵심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예수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꿈꾸는 자의 의식 상태를 강하게 투영하여 그를 시의 중심에 정립하려는 시인의 의도로 간주된다. 십자가의 환영을 경험한 꿈꾸는 자는 새로운 영적 상태 혹은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자신의 의식 상태를 고백하게 된다. 그의 고백은 신앙결단의 양상을 보이며 앞에서 보여진 슬픔과 절망으로 점철된 그리고 억눌린 의식 상태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Gebæd ic me þa to þan beame, bliðe mode,
 elne mycle, þær ic ana wæs
 mæte werede; wæs modsefa
 afysed on forðwege, feala ealra gebad
 langunghwila. Is me nu lifes hyht
 þæt ic þone sigebeam secan mote
 ana oftor þonne ealle men,
 wel weorðian, Me is willa to ðam
 mycel on mode, and min mundbyrd is
 geriht to þære rode. (DR 122-131a)

그리고 나는 내가 홀로 있는 그 곳에서, 즐거운 마음과 커다란 열정으로 그 십자가에 기도했노라. 오랜 갈망을 견디어내고, 내 마음은 출발을 향하여 한껏 고조되었노라. 이제 나에게 생명의 희망은 다름 아닌 나 홀로 그 승리의 나무를 찾아나서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 보다 더 많이 그 나무(십자가)를 온전히 공경하는 것이노라. 그것을 향한 나의 소원이 마음속에서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나의 보호는 십자가에 있노라.

위 예문은 꿈꾸는 자가 십자가의 환영을 본 후에 형성된 자신의 정신 상태를 규명한 부분으로써 시의 초반부에서 시작된 자아점검의 습성이 후반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 환영 후 꿈꾸는 자에서 보여 지는 현저한 감정 및 인식의 변화는 “blīðe mode”(happy spirit)에서 나타난다. 이전에 지녔던 양심의 가책과 슬픔의 상태에서 탈피한 심신의 자유스러움과 행복한 정신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 꿈꾸는 자가 이제 새로운 의식 상태에 돌입했음을 암시한다. 꿈꾸는 자의 이러한 새로운 의식 상태는 나무와 십자가에서 보여진 변형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최종 지향점이 예수와의 일체가 아닌 의식의 부분적 공감형성에 있게 된다. 꿈꾸는 자와 예수 사이의 의식의 공감대는 십자가 환영 후의 꿈꾸는 자의 상태와 십자가 처형에 투영된 예수의 모습에서 발견되며 특히 두 개의 상투적 표현에 의해 그 동질성이 두드러진다. 자신이 목격한 환영이 끝나가자 꿈꾸는 자는 십자가에 기도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드러내기 위해 “elne micle”(커다란 열정으로; DR 123)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십자가를 오르는 예수의 모습에서도 공히 발견되고 있다.

Geseah ic þa Freaan mancynnnes
 efstan elne micle, þæt he me wolde on gestigan. (DR 33-34)

그리고 나는 인간의 주님이 대단한 열정으로 서둘러 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노라.

성경 해석에 준하면 예수가 겪은 십자가 처형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의 결단과 의지가 배어 있는 능동적 자세로 간주된다. 「십자가의 꿈」

에 투영된 십자가 처형에 임하는 예수의 모습은 이러한 기독교 교리를 의식하여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수의 능동성이 십자가 환영 후 영적 각성을 달성한 꿈꾸는 자의 의지적 결단에서 엿보이는데, 상투적 표현인 “elne micle” (great zeal, courage)의 반복 사용에서 입증된다.

예수와 꿈꾸는 자 사이의 의식의 공감대를 드러내는 또 다른 상투적 표현으로써 “mæte werede”(alone with little companion)를 들 수 있다. 십자가의 환영을 경험한 꿈꾸는 자는 외부와의 단절을 암시하는 외롭고 고립된 상태로 묘사되는데 여기에 “mæte werede”가 핵심 표현으로 사용된다. 십자가 처형이 끝난 예수의 상태 역시 동일한 상투어인 “mæte werede”로 묘사되고 있다. “reste he ðær mæte weorode”(그 분은 동료도 없이 그 곳에 남아 있었노라; DR 69). *Mæte werede*는 *mæte*(small, insignificant, moderate)와 *weorod*(troop, band, host)의 합성어로서 “적은 무리”(a poor-sized company, little company)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BT).⁷⁾ 리교수는 이 표현이 죽은 예수그리스도의 외로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Lee 183). 꿈꾸는 자의 상황—만인이 잠든 한밤중—을 고려할 때 *mæte werede*의 도입은 매우 적절할지 모르나 시의 전반적인 내용 전개를 감안하면 이의 상투적 표현은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위 예문에서 꿈꾸는 자는 자신의 고립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mæte werede* 외에도 ‘홀로’의 의미를 지니는 “ana”(alone)을 123행과 128행에 걸쳐 2회 반복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된 상태는 영적 묵상 내지 영적 각성의 분위기 와 잘 어울리며 동시에 세속의 가치관과 거리를 두는 영적 가치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예수의 이미지와 부분적으로 일치됨을 알 수 있다.⁸⁾

7) 이 외에도 ‘few followers,’ ‘a small group,’ ‘with none at all’ 등과 같은 의미가 제시되기도 하며 윌리엄 헬더(William Helder) 같은 학자는 성경(Matt. xxvii.61, Mark xv.47)을 인용하여 ‘small company’를 두 메어리로 간주하기도 한다. 즉, 고대영시 작시법에 자주 사용되는 곡언법(litotes)의 일례로써 ‘none at all’의 의미가 아닌 ‘몇 명’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8) 고립 혹은 세속과의 단절을 통한 영적 각성은 고대영웅시인 『베오울프』의 후반부(Beowulf 2440-2467)와 고대 비가인 『방랑자』(“The Wanderer”)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Swa cwæð snottor on mode, gesæt him sundor æt rune”(그리하여 그 현자는 묵

이러한 상투적 표현을 둘러싼 예수와 꿈꾸는 자 사이의 동질성은 나무(십자가)와 예수 사이에서 보여 지는 정체성의 일치와는 차이를 두고 있으며 절대자와 추종자라는 개별적 정체성을 견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향한 예수와 종교적 염원을 달성하려는 꿈꾸는 자 사이에는 엄연한 일체감이 존재하게 된다.

VI. 결론

구원과 속죄라는 신학적 교리를 다루고 있는 『십자가의 꿈』은 다양한 화자를 등장시켜 화자 사이에 존재하는 변형과 일치라는 매우 특이한 시적 기법을 활용한다. 정체성을 둘러싼 화자 사이의 변형과 일치는 성부·성자·성신 사이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십자가의 꿈』만이 지니는 독특한 문학적 기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화자들 사이의 변형과 일치는 꿈의 환상(dream vision)이라는 또 다른 문학적 기법 안에서 점증적으로 발전하여 총체적 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을 감안하면 시인이 도입한 꿈의 환상은 정체성을 둘러싼 화자들 사이의 변형과 일치의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된다. 직접화법을 병행한 화자의 등장과 계속되는 화자의 변형과 화자 사이의 일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나무와 십자가 사이에 변형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십자가와 예수,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와 예수 사이의 부분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로의 전이는 매우 점진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먼저 화자인 나무(십자가)는 예수의 처형 장면을 목격하는 방관자에서 점진적으로 예수의 고통(처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이미지로 전환하게 된다. 나중에 화자(십자가)는 이전에 투영된 자유의지의 제한자로서의 수동적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자의 위치로 승화하게 된다. 동시에 인간의 영적 문제 즉, 기독교 핵심 교리인 인간

상 속에 홀로 떨어져 앉아 말했노라, “The Wanderer” 111).

구제와 같은 구속주 만이 할 수 있는 절대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게 되어 십자가와 예수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첫 번째 화자인 꿈꾸는 자도 일련의 변형의 과정을 거쳐 예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꿈꾸는 자와 십자가는 일차 단계에서 매우 수동적인 목격자-꿈꾸는 자는 나무(십자가)를 목격하게 되고 나무인 십자가는 예수의 처형 장면을 목격-의 위치를 지니게 되나 나중에는 자신들이 목격하는 대상에 동화되는 변형의 과정을 밟게 되고 종극에는 둘 다 매우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꿈속의 환영을 접한 꿈꾸는 자의 초기 반응은 자신의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화자는 꿈속의 환영을 통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새로운 상태는 예수의 영·육간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많은 상징성을 내포한 십자가는 시인의 의도된 의인법(*prosopopoeia*)에 의해 감정과 사고력을 겸비한 인격체로 등장하여 종극에는 예수와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반면 꿈꾸는 자는 꿈속의 환영을 경험한 후 새로운 영적 각성에 이르는 의식의 반등을 보여주게 되어 예수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투영하게 된다.

주제어: 십자가의 꿈, 화자의 변형과 일치, 상투적 표현

Works Cited

- Alexander, Michael, trans. *Beowulf*. Harmondsworth: Penguin, 1973.
- Bonjour, Adrien. *Twelve Beowulf Papers: 1940-1960 with Additional Comments*. Geneva: U of Neuchatel, 1962.

- Bosworth, Joseph, ed., and T. Northcote Toller, ed. and rev.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 Britton, G. C. "The Characterization of the Vikings in *The Battle of Maldon*." *N&Q*, n.s. 12 (1965): 85-7.
- Bolton, W. F. "The Book of Job in *The Dream of the Rood*." *Mediaevalia*. 6 (1980): 87-103.
- Burlin, Robert B., and Edward B. Irving, Jr., eds. *Old English Studies in Honour of John C. Pope*. Toronto and Buffalo: U of Toronto P, 1974.
- Cherniss, M. D. *Ingeld and Christ: Heroic Concepts and Values in Old English Christian Poetry*. The Hague: Mouton, 1972.
- Chambers, R. W. *Beowulf: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Poem with a Discussion of the Stories of Offa and Finn*. Cambridge: Cambridge UP, 1959.
- Clark Hall, John R., trans. *Beowulf and the Finnsburg Frag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 Einarsson, Stefan. "Old English Beot and Old Icelandic Heitsrenging." *PMLA* 49 (1934): 975-93.
- Farrell, R. T. "Beowulf, Swedes and Geats." *Saga-Book* 18 (1972): 225-86.
- Garmonsway, G. N., and Jacqueline Simpson. *Beowulf and its Analogues*. London: J. M. Dent & Sons, 1980.
- Helder, William. "The engel dryhtnes in *The Dream of the Rood*," *Modern Philology* 73 (1975): 148-50.
- Irving, Edward B., Jr. *Rereading Beowulf*.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89.
- _____. *A Reading of Beowulf*. New Haven: Yale UP, 1968.
- Kendal, Calvin B. *The Metrical Grammar of Beowulf*. Cambridge: Cambridge UP, 1991.

- Klaeber, Frederick.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3rd ed. Boston: Heath, 1950.
- Langer, Susanne. *Feeling and Form: A Theory of Art*. New York: Scribner, 1953.
- Lawrence, William W. *Beowulf and Epic Tradition*. Cambridge, MA: Harvard UP, 1930.
- Lee, Alvin. "Towards a Critique of the *Dream of the Rood*." *Anglo-Saxon Poetry*.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1975.
- Nicholson, Lewis S., and D. W. Frese, ed. *Anglo-Saxon Poetry: Essays in Appreciation*.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1975.
- Parks, Ward. *Verbal Duelling in Heroic Narrative: The Homeric and Old English Traditions*. Princeton: Princeton UP, 1990.
- Renoir, Alain. *A Key to Old Poems: The Oral-Formulaic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West-Germanic Verse*. London: Pennsylvania State UP, 1988.
- Sherley-Price, Leo, trans. *A History of the English Church and People*. London: Penguin Books, 1968.
- Shippey, T. A. *Old English Verse*. London: Hutchinson, 1972.
- Spearing, A. C. *Medieval Dream-Poetry*. London: Cambridge UP, 1980.
- Swanton, Michael, ed. *The Dream of The Rood*. Exeter: U of Exeter P, 1987.
- Wrenn, C. L., ed. *Beowulf, with the Finnesburg Fragment*. London: Harrap, 1984.

The Implication of the Dream Vision: Transformation and Coalescence of Speakers in “The Dream of the Rood”

Abstract

Dongill Lee

There are three main speakers in “The Dream of the Rood”: the first of these is the Dreamer, within whose mind and in whose words the whole poem takes place. As Susanne Langer has rightly put it, “The most noteworthy formal characteristic of dream is that the dreamer is always at the center of it.” The second is the speaking tree before the scene of crucifixion. The third is the cross which appears in a visionary form and speaks at length to the dreamer, and by so doing fundamentally alters his life. The fourth is the *dryhten* (Lord) Christ, who delivers his message through the cross. However, such individuality is often obscured as the roles of speakers overlap. This obscurity emerges firstly between the tree and the cross, secondly the cross and Christ, thirdly the cross and the Dreamer, and finally Christ and the Dreamer.

The coalescence of the speakers is gradually achieved through the poet’s characteristic use of words or phrases. The word *eaxlegespann* (cross beam) is the first suggestion, that is, the metaphor by which the body of the tree or cross is increasingly identified with that of Christ. Two phrases are applied to the dreamer just after the Rood has finished speaking which earlier have been applied to Christ. The first, “elne micle” (with great zeal, courage; DR 123) describes the dreamer’s strong desire to pray to the cross. It also parallels the “elne micle” (DR 34) with which ‘the Lord of mankind’ earlier hurried to mount up on the cross. However, this parallelism between the Dreamer and Christ with reference to the same formulaic express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Dreamer is identified with Christ unlike the sharing of the same identification of the Cross and Christ. Hence exists clear difference in terms of transformation and coalescence of identification amongst the tree, cross and Christ, and the Dreamer and Christ.

Key Words

The Dream of the Rood, transformation and coalescence of speakers, formulaic expression

논문 투고 일자 : 2008. 1. 5.

게재 확정 일자 : 2009. 1. 29.